

9/14(월) 시편 묵상 19

시 82:1-8

이 시편은 아무런 표제와 서론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1절에서 만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모습은 의미심장한 시작을 보여주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신들의 법정’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다시 ‘신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신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상의 재판관들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정에 있는 재판장은 주로 앉아 있는데 1절의 ‘서시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재판관들의 재판장으로서는 세상 재판관들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관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본래 그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의 말씀과 같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3-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의 임무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정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뇌물을 받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재판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며 공적인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미 재판장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출 23:6-8,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는 재판관들이 도덕적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이 세상이 불의의 지배를 받고 어둡고 최악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들을 ‘신’이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판관의 역할은 주로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었고(신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어 신성시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출 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신으로 불리우는 자리에 있던 자들도 사람으로서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결국 죽게 될 운명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7-8절). 이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임무를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땅의 궁극적인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재판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재판을 내린 사람으로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왕상 3: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잠언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며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소사사들의 모습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Judges 즉, 재판관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재판의 일까지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이 때 몇몇 소사사들의 업적을 보면 그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서 수많은 자식들(아들과 딸들)을 낳고 재산도 많이 축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재판관으로서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 또한 올바르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삿 12:9, “그(입산)가 아들 삼십 명과 딸 삼십 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삼십 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칠년이라.”).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한 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백성의 재판관이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을 꾀하는 일이 벌어지게 있었습니다(삼하 15:4-6,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러한 성경의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지도자(재판관)들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국가는 가장 강성했고 번영했으며 그 반대일 때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남유다가 불법과 부패로 치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사회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의 응답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뿐만 아니라 삶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올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또 국가를 위한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김봉춘<몽골>, 김홍기<T 국>, 나요엘<미얀마>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